

Korea Economy



Economist 이상재
02)368-6162
sjlee@eugenefn.com

Korea Economy Check point

- ✓ 11월 1-20일 수출, 전년동기비 11.1% 증가한 312.8억달러 기록. 일평균은 전년동기비 7.6% 증가한 19.5억달러 기록
- ✓ 11월 월간 수출, 전년동기비 5.7% 증가한 465.7억달러, 일평균으로는 전년동기비 8.0% 증가한 20.3억달러를 보일 전망
- ✓ 의미 1. 8월 이후 한국 수출의 회복기조 지속. 7-8월 8.7% 감소에서 9-10월에 1.6% 증가로 반전된 데 이어 11월에는 증가세 확대될 가능성이 이를 지지
- ✓ 의미 2. 연말연초 수출은 다소 위축될 여지. 11월 들어 미국과 유로존에서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가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
- ✓ 2021년 수출, 바이든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퇴조와 백신 접종 보편화에 힘입어 연간 9.2% 증가하며 3년만에 감소추세에서 탈피할 전망

11월 1-20일 수출, 가을 들어서의 회복기조 지속

Korea Economy Overview

11월 국내경제가 내수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출은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. 지난 9-10월에 전년대비 증가로 반전된 수출이 11월 들어 증가기조를 확대했다. 관건은 가을 이래 수출 회복의 추세성이다. 수출 여건은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다. 미 대선에서의 바이든 당선 및 백신 개발 등은 긍정적이나 선진국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이 부담이다. 11월 수출입 및 2021년 수출입 전망을 제시한다.

11월 1-20일 수출, 전년동기비 11.1% 증가 → 일평균 수출은 전년동기비 7.6% 증가

11월 1-20일 수출이 양호하다. 수출은 동 기간에 312.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비 11.1% 증가했다. 통관일수가 전년동기보다 0.5일 많아 일평균 기준으로는 7.6% 증가로 둔화되지만 이 역시 10월에 이어 증가기조를 유지했다.

11월 1-20일 수입은 수출과 달리 부진하다. 수입은 동기간에 279.7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비 1.3% 증가에 그쳤다. 일평균으로는 1.9% 감소하여 10월의 증가(전년동기비 3.4%)가 한 달만에 무너졌다. 원유(전년동기비 -46.9%)와 가스(-30.2%) 수입 급감이 주도했다.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위축은 반영되지 않았다.

11월 1-20일 수출에서 품목별로는 반도체(21.9%), 승용차(11.9%), 무선통신기기(36.2%) 등이 증가한 반면, 석유제품(-48.2%), 컴퓨터(-1.9%), 가전제품(-3.1%) 등은 감소했다. 지역별로는 중국(7.2%), 미국(15.4%), EU(31.4%) 등에서 증가했고, 일본(-7.2%), 중동(-21.8%), 호주(-15.2%) 등으로는 감소했다.

11월 통관일수는 23일로서 전년동월에 비해 0.5일 적다. 특히 11월 1-20일에 전년동기간대비 0.5일 늘어남에 따라 일평균 수출이 확대되는 월 하순에는 1일 줄어든다.

11 월 수출, 전년동기비 5.7% 증가 예상

우리는 11 월 수출입에 대해 수출은 전년동기비 5.7% 증가한 465.7 억달러, 수입은 전년동기비 3.1% 감소한 394.5 억달러 기록하여 71.2 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전망한다. 11 월 일평균 수출은 전년동기비 8.0% 증가한 20.3 억달러를 기록하여 9 월 이래 32 개월 연속 20 억달러선을 상회하며, 일평균 수입은 전년동기비 1.0% 감소한 17.2 억달러를 기록하여 한 달만에 재차 17 억달러선으로 후퇴를 예상한다(도표 1-3).

11 월 수출이 우리의 예상에 부합한다면, 수출은 8 월 이후 **완전한 회복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**이 높다. 2 분기에 전년동기비 20.3% 급감 이후 7-8 월에도 전년동기비 8.7% 감소했으나, 9-10 월에 전년동기비 1.6% 증가에 이어 11 월에는 5%대 증가로 확대되기 때문이다. 다만, 11 월 들어 미국 및 유로존에서 코로나 19 신규확진이 급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수입수요 약화가 연말연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.

2021 년 수출, 9.2% 증가하며 3 년만에 플러스 성장 예상

우리 수출은 2020 년에 연간 5.8% 감소하여 2019 년의 10.4% 감소에 이어 2 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된다. 지난 2015 년과 2016 년에 이어 두 번째 2 년 연속 역성장이다. 그러나 2021 년에는 **바이든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퇴조와 백신의 보편적 접종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될**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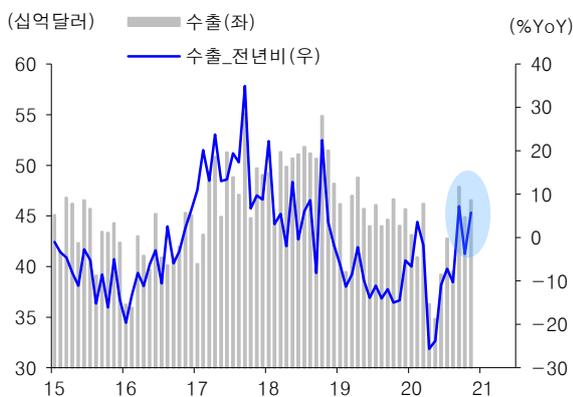
우리의 2021 년 국내외 경제전망에 의하면 2021 년 수출은 전년동기비 9.2% 증가한 5,578 억달러, 수입은 전년동기비 9.6% 증가한 5,141 억달러이다. 상반기에는 긍정적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하반기에는 백신의 긍정적 영향이 반영된다. 특히 우리 수출이 2010 년 이후 세계교역량에 탄력적(탄력계수 1.3)인 경향을 보였음을 감안하면, 2021 년 세계교역세가 확대될 경우 우리 수출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(11/24 일 유진 Macro Economy, "2021 년 경제전망: Curvy Normalization" 참조).

도표 1 11 월 수출입, 전년동기비 각각 5.7% 증가 및 3.1% 감소 예상

십억달러	2020 년							
	5 월	6 월	7 월	8 월	9 월	10 월	11/1-20 일	11 월 F
수출	34.8	39.2	42.8	39.5	47.9	44.9	31.3	46.6
전년비(%)	-23.8	-10.9	-7.1	-10.3	7.3	-3.8	11.1	5.7
수입	34.6	35.7	38.7	35.7	39.3	39.1	28.0	39.4
전년비(%)	-20.6	-11.1	-11.6	-15.8	1.6	-5.6	-1.3	-3.1
무역수지	0.2	3.6	4.1	3.8	8.5	5.8	3.3	7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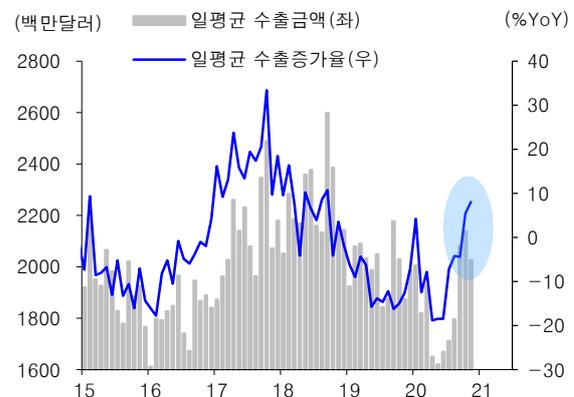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부, 유진투자증권

도표 2 11 월 수출, 9 월 이래의 회복기조 확대 예상



자료: 산업부, 유진투자증권

도표 3 11 월 일평균 수출, 3 개월 연속 20 억달러선 상회



자료: 산업부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 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•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•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85%
•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15%
•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0.09. 30 기준)